



게임کم

## 다크사이드 스토리

### "큰일났어, 아무래도 아버지가 납치된 것 같아"

처음 게임이 시작되면 수희는 집 안에 있다. 하지만 집 안에선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으며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 그저 재미삼아 집 안을 한 번 둘러보면 된다. 오른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거리이다. 왼쪽과 오른쪽 길을 따라 갈 수 있으며,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패스워드(암호)를 맞추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대화도 일상적인 것뿐이다. 그러므로 신경쓰지 말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둘러보도록 한다. 수희의 집 왼편을 보면 수희 아버지의 치과가 있다. 치과 안으로 들어가 진료실로 가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다. 치과를 나와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거지가 한 명 쫓그리고 앉아 있다. 이 거지는 게임 진행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신경쓰지 말도록. 마구 때려도 제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니 적들과 싸우기 전에 격투 기술을 익히는 상대로 이용하면 좋다. 거지 옆을 보면 학교 문방구에서나 볼 수 있는 장남감 자판기가 있다. 자판기 앞으로 다가가면 자동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하지만 금방 돈넣는 곳도 없는 고물이라며 발로 자판기를 걷어찬다. 그러자 자판기에서 장남감이 하나 튀어나와 땅에 떨어진다. 공짜로 장남감을 얻었다고 좋아하지만 장남감에서 패스맨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패스맨이 내는 패스워드를 맞추어야지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모두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세 번 모두 실패하면 다시 자판기 앞으로 가서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매뉴얼을 보고 정확한 그림을 맞추도록 한다. 패스워드 입력이 끝나면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과로 다시 가보면 수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간호원이 안절부절하며 진료실 안을 돌아다닌다. 간호원은 수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도중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급히 나갔으며 아무래도 전화를 건 사람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구해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수희, 이제부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수희의 모험이 펼쳐진다. 간호원과 대화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꼭 간호원과 대화를 해야 한다.

### 등장 인물

이 게임에는 주인공인 수희 외에 수희 아버지인 오상현, 칼치, 선영 등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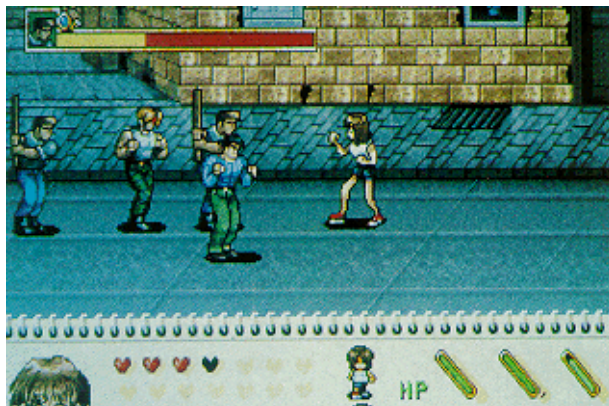
 키보드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게임의 키보드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동할 때는 방향키를 누르고, 점프할 때는 <Ctrl>키를 누른다. 또 주먹으로 공격할 때는 <Alt>키를 누르고 다리로 내려찍기 공격을 할 때는 <Spacebar>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Enter>키를 누르면 옵션 메뉴를 볼 수 있다.

### 철창문 스위치를 찾아라!!

치과를 나와 수희집 오른쪽 집으로 가서 아저씨에게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말하면 마을 회장인 최봉암씨가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니 찾아가서 물어 보라고 일러준다. 하지만 최회장의 집이 있는 곳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최회장의 집은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나온다. 거지가 있는 곳을 지나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 이 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화면에 나타난 적들을 모두 물리쳐야 오른쪽으로 약간 전진할 수 있으며 최회장 집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적들은 그리 강하진 않으나 숫자가 많아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최회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최회장이 앉아 있다. 그에게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말하면 마을 옆 산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총소리 같으며, 가끔 사람들이 밤에 트럭에 무언가 싣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밀렵꾼들이 산짐승을 실어날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실종과 밀렵꾼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어 보면 수희 아버지가 그린피스의 회원이며, 밀렵꾼들이 밀렵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막으려고 했을 테니 아마 밀렵꾼들에게 당한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경찰에 알릴 수 없다며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곤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만 주는거라며 벽가스-C를 준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적들이 수희의 길을 막는다. 조금 전 적들보다

더 강한 적들이 많으니 조심한다. 적들을 물리치며 거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화면이 잠시 바뀌며 여자가 장남감 자판기에서 장남감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최회장을 만나고 나오면 비교적 센 적들이 나온다.

산으로 가는 길이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철창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복덕방으로 가서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산의 주인이 누군가 물어보면 골목 맨 끝 집주인의 것이라고 알려준다. 도중에 할머니 집에 들러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게임의 진행과는 상관 없지만 마지막 엔딩과 관련이 있다. 복덕방을 나와 왼쪽 끝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철창이 나온다. 철창옆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지혜가 있다. 지혜에게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아빠가 산에 가지 말라고 했으며 문을 스위치로 여는 것 같은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스위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쇼파 뒤에 있다. 의자 뒤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게 된다. 다시 지혜와 대화를 하면 아빠가 알면 혼날테니 몰래 갔다오라고 한다.

## "부탁이야, 아빠를 해치지 말아줘!"

지혜의 집을 나오면 산으로 통하는 철창이 열려있는 것이 보인다. 안으로 들어가면 산이 나온다. 왼쪽으로 걸어가기 전에 위쪽을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서있다. 나무 중간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하나 나온다. 동굴 안에는 거지 한 명이 누워 있으며 그 뒤쪽에 안젤르가 있다. 거지 뒤쪽에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니 가지도록 한다. 안젤르에게 말을 건내면 여기가 어디지... 라는 말만 한다. 지금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일단 안젤르의 소재를 파악한 채 동굴을 나온다. 왼쪽으로 전진하면 적들이 나타나 공격을 해온다. 싸움을 벌이며 계속 왼쪽으로 전진하면 폭포가 나온다. 폭포 중앙 부근에 노란 구슬이 있는 장소에서 위쪽으로 올라 가면 또 다른 동굴이 나온다. 이 곳은 엔딩과 관련이 있는 장소다. 동굴을 나와 계속 전진하며 적들과 싸움을 벌이도록 한다. 총을 쏘며 공격하는 적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에 밀렵꾼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밀렵꾼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수희가 말하면 수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일을 안 이상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며 공격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적을 물리치려는 순간, 지혜가 나타나 자신의 아버지라며 해치지 말라고 부탁한다. 밀렵을 반성하며 산을 팔아 동물 보호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반성하는 지혜 아버지의 대화가 끝나면 지혜의 집으로 간다. 지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물어보면 자신이 납치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오박사가 불량배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알려준다. 불량배에 대해 물어보면 그 자는 고리대금을 일삼는 공치로 주변 조직 중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치가 있는 곳을 물어 보면 뒷골목 공사 중인 건물이 아지트라고 알려준다. 지혜와 대화를 하면 아버지를 구해주어 고맙다며 벅까스-C를 준다.

## 공치를 만나는 방법 두 가지

지혜의 집을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공사 중이던 팻말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사 중인 건물이 나온다. 여기에 비밀 장소가 하나 감추어져 있다. 위로 올라 가기 전에 오른쪽 틈을 통해 들어가면 방이 하나 나온다. 한 번에 들어가기 힘들며 여러 번 시도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패하여 길 위쪽으로 건너가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 시도할 수 있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를 조금씩 누르면 된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아껴라를 만날 수 있다. 아껴라에게 특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화난 상태에서 적을 잡은 후 <↓>, <→>키를 누른 후 <Alt>키를 누르면 된다고 알려준다. 기술을 전수받은 다음 위쪽으로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위를 보면 문이 있고 그 왼편으로 튀어나온 벽이 있다. 벽 앞으로 가서 <Alt>키를 누르면 감추어진 또 다른 방이 나온다. 안으로 들어가면 터리 바가드를 만나게 된다. 터리 바가드 역시 초필살기를 전수해 준다. 즐거운 상태에서 적을 잡고 <↓>, <→>, <←>키를 누른 다음 <Alt>키를 누르면 된다고 알려 준다. 그리고 벽까스를 하나 준다. 오른쪽으로 가면 공사 중인 건물이 나온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적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참치를 만나 쫓치냐고 물어 보면 쫓치든 멀치든 무슨 상관이라며 공격을 해온다. 참치는 발기술이 뛰어나므로 정면 대결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면 칼치가 자신은 쫓치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밝힌다. 쫓치가 있는 장소를 물어 보면 폐쇄된 공장에 있다고 말하고,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나니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는다. 칼치를 물리치고 나면 복덕방으로 간다. 복덕방 할아버지께 공장이 있는 곳을 물어 보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고 알려준다. 버스를 타기 전 선영의 집에 들르면 선영이가 말을 안하고 이상하다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선영의 방에 들어가면 선영이는 나가라면서 문을 닫는다. 다시 선영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선영의 집을 나와 오른쪽 길을 따라 최회장 집을 지나면 버스 정류장 팻말이 나온다. 팻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버스에 타고 공장으로 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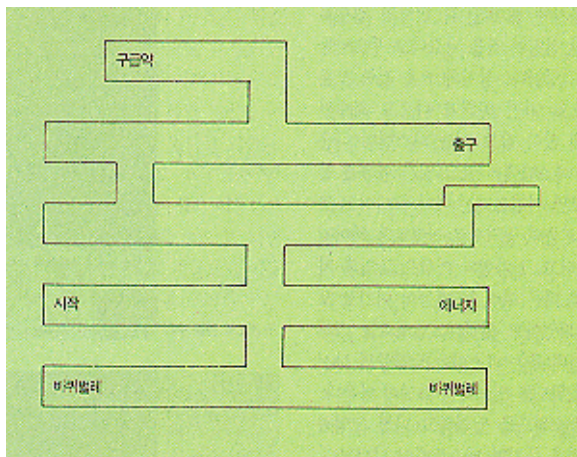
쫓치에게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며 앞에 설명한 것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간호원에게 아버지의 납치 소식을 들은 다음 바로 최회장을 찾아가지 말고 지혜의 집에 들러 지혜와 대화를 하면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대화를 마친 다음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쇼파 뒤로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산으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는 철창문이 열린다. 산으로 가서 먼저 밀렵꾼을 처치한 다음 최회장 집으로 간다. 최회장에게 아버지가 불량배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하면 그 불량배가 쫓치를 말하느냐고 물어 본다. 쫓치에 대해 물어 보면 3년 전, 어물전파와 정육점파 양대 조직간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결과 정육점파는 세력을 잃고 어물전파는 보스인 준치를 잃게 되었으며, 보스 자리를 놓고 쫓치가 비열하게 그의 경쟁자인 칼치를 제거하여 협과 의를 숭상하던 조직을 청부 폭력이나 마약판매 등을 일삼는 불량배의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들려준다. 최회장 집을 나와 왼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위로 올라 갈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위로 올라가면 칼치를 만날 수 있다. 칼치에게 아버지를 구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하면 자신을 이겨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칼치는 매우 재빠르고 공격 또한 강하므로 특수 기술을 적절히 이용해야 이길 수 있다. 칼치를 이기고 나면 참치가 있는 공장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수희 대신 칼치를 조작하여 참치와 싸우게 된다. 칼치를 물리치고 나면 수희에게 쫓치가 공장에 있다고 알려주며 버스를 이용해야 공장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준다. 이 모드에서도 역시 감춰져 있는 바가드와 아껴라를 만날 수 있다.

## 이빨 안덩기로 유명한, 입냄새가 고약한 페스트맨

공장 안의 적들과 싸우며 계속 전진하면 컨베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장소가 나온다. 선불리 벨트 위에 올라가면 뒤쪽의 기계 속으로 들어가 죽게되니 주의해야 한다. 벨트 위로 올라가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출구로 들어갈 수 있다. 쫓치에게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면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며 자기 부하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각오하라고 한다. 쫓치를 처치하고 나면 자신이 납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희 아버지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들었다고 말하면 얼마 전 쫓치가 화장실 앞을 지나갈 때 수희 아버지가 휴지가 없다고 도움을 청했으나 마침 종이가 없어 대신 돈을 주었다고 말하며 웃는다. 그 말을 들은 수희는 창피해 얼굴이 빨개지지만 극한 상황에서 용기를 가진 수희 아버지를 존경한다며 수희를 위로해 준다. 그리고 맞아가면서도 이걸 줘야하나 하며 벽까스를 준다. 쫓치와 헤어진 뒤 선영의 집으로 가면 선영이 집을 나갔다고 부모님들이 걱정한다. 참치와 싸운 건물 오른쪽으로 가면 공터가 나오고 하수관 위에 앉아 울고 있는 패스맨이 나온다. 패스맨에게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안젤르라는 여자와 데이트 도중 괴물의 공격으로 안젤르와 헤어지게 되고, P차원의 이상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여러 P-맨들이 여기로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안젤르를 그리워하며 우는 패스맨을 달래주면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페스트맨이 나타난다. 수희가 패스맨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페스트맨이며 악마라고 말한다. 그 소리를 들은 페스트맨이 자신을 멋지게 표현해 준 선물을 준다고 수희를 P-맨으로 만들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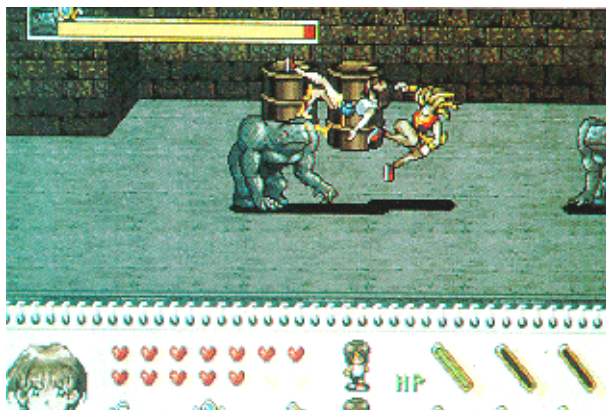
모습이 변한 수희를 달래며 패스맨이 원상태로 만들어 준다. 그런 다음, 페스트맨이 자신의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치과 의사인 수희 아버지를 납치한 것 같다고 말한다. 페스트맨이 간 곳을 물어 보면 하수도 속으로 들어 갔다고 알려준다. 수희가 아버지를 구하러 하수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면 하수도 속에는 페스트맨의 입냄새로 돌연변이된 괴물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일러 준다. 하수도 속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미로로 되어 있지만 많은 괴물이 나타나니 주의해야 한다. 하수도 속의 미로는 <그림>과 같다.



【그림】 하수도 속의 미로

## 아버지는 볼 일(?)이 급해 화장실로 갔다나...

출구를 나서면 가솔한 선영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상한 모습으로 변한 선영이는 페스트맨이 인간들을 해방시킬 거라며 더 이상 공부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페스트맨의 감언이설에 속고있다고 말하면 위대한 분께 그따위 말을 한다며 선영이가 공격을 시작한다. 선영이는 수희의 기술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몸놀림 또한 재빠르다. 주위의 괴물을 먼저 물리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면 선영이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 선영에게 후라보깸을 주면 제정신으로 되돌아 온다. 선영에게 부모님들이 걱정하니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면 울면서 뛰어간다. 마지막으로 페스트맨과의 대결이 남았다. 페스트맨 역시 주위의 괴물들을 먼저 처치하는 것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페스트맨을 이기고 나면 게임 끝. 페스트맨은 자신의 입냄새 때문에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두를 자신과 같이 만들려고 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말한다. 수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 자식을 버린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며 부모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한다. 이 때 갑자기 텔레비전 프로인 우정의 무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머니 찾기 행사가 진행된다. 무대 위에 세 명의 P-맨이 올라가지만 결국은 무대 뒤에 계신 어머니가 페스트맨의 어머니로 판명된다. 둘이서 포옹하는 순간, 페스트맨의 가슴에 있던 P자가 사라진다. 이 때 하수도가 폭발하고 P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P차원으로 통하는 문은 폭포 속의 동굴이며 모두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P-맨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출구가 나타났다.

뺑맨이 떠나며 수희의 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준다. 거짓말을 하는가 의심이 되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패스맨이 안젤르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나무 뒤에 있던 동굴에서 안젤르를 본 적이 있다며 패스맨을 데려다 주어 안젤르를 만나게 해주면 미쳐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다. 집으로 가서 아래쪽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버지는 납치된게 아니고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결말이다. 썰렁하게도~

## 분석을 마치면서

몇년 전 발표되었던 「더블 드래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 어드벤처적인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게임의 구성이나 진행 방식은 뛰어나지만 전체적인 게임 기획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칼치를 이용하는 것도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진행되도록 했으면 더욱 훌륭한 게임이 될뻔 했다. 게임 주인공이 둘이면 한 게임을 두 번 즐길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흠으로

대화 내용들이 조금 귀에 거슬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는 의도였겠지만 조금은 정화시킬 필요가 있음직하다.

장르	아케이드				
제작	손노리팀				
사운드	☆	☆	☆		
그래픽	☆	☆	☆		
난이도	☆	☆			

가격 : 3만3천원

자료협조 : SKC 소프트랜드(☎ 080-023-6161)

